

목포시, 올 전지훈련 180개팀 8만명 유치키로

축구·육상·하키·수영 등 6종목

전담팀 구성 접근성 용이 등 홍보

목포시가 찾아가는 마케팅, 스포츠 브리дж 지원 등 전략적인 전지훈련팀 유치계획을 세우고 올해 축구, 육상, 하키, 수영 등 6종목에 180개팀, 8만여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목포국제체육센터, 목포국제필드하키장 등 국제 규격 경기장과 스포츠클라이밍, 카누장 등 다양한 종목의 훈련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축구, 하키, 육상 등 3개 종목의 시정 실업팀이 있는 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12종목, 22개교)를 육성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이

잘 구비된 점, 호남고속철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 체육회 사무실에 10여명의 전지훈련팀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담반은 전지훈련 집중기간(동계 11~3월, 하계 7~9월)에 운영되며, 전지훈련장 시설 이용안내와 숙박업소·음식점·관광지 소개, 전지훈련에 따른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시를 방문한 팀과 지역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지로 우



최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중인 선수들이 목포지역 축구팀과 경기를 하고 있다.

선 선정함으로써 상호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축구·육상·하키 등 직장 운동경기부 각 종목별 감독과 도 및 전국협회와 연계해 유치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또 전지훈련기간이 긴 강원도 팀과 부모들이 많이 오는 청소년팀 유치를 위해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전지훈련팀에 대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국가대표팀 위주의 교통편의 지원을 30명 이상 단체팀까지 확대 적용하고, 경기장·시설 사용료 면제, 숙박예과 대행, 시티 투어 기회제공, 스포츠브리дж 소요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전략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지훈련팀 유치는 스포츠 건강도시 목포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진도 가사도 여객선 접안 사고 위험

간조형 경사식 부두 불안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선착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 품질의 톱 생산지로 300명 가까이 사는 비교적 큰 섬인 가사도에는 목포와 진도 가항에서 하루 네 차례 여객선이 다니고 있으나 '간조형' 경사식 부두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은 적당하게 물이 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만조와 사리 때는 여객선을 타고 내릴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람과 차량을 함께 싣는 여객선을 선착장에 대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간조형' 경사식 부두는 지난해 5여월을 들어 기존 선착장을 바다 쪽으로 5m 더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수심이 2m에서 3m로 개선됐지만

물 때 접안이 쉽도록 한쪽을 높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만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항에서 가사도를 오는 철부도선은 밀물 때 경사식 바로 옆 계단식 선착장에 접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주민 김모(67)씨는 "물이 제일 얇게 빠지는 사리와 밀물 때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화물을 실은 차량도 위태롭게 배에 빠져나간다"며 "하루빨리 밀물 때 이용 가능한 접안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으로 만조형 접안시설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 안에 밀물 때 쉽게 배를 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hpark@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공식여행사 30곳 선정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2일 "2014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식여행사 3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공모하며 대상 여행사는 일반여행업, 국내 여행업 등 목록제다.

공식여행사로 선정되면 박람회 공식 휘장 사용권, 여행객도입 실적에 따른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조류박람회 홈페이지 공식여행사로 게재, 유치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조류박람회 홈페이지(www.wandoexpo.com)를 참조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기념촬영

목포대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목포현대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2014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9일 폐막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산업체의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를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수행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계의 인력 불합치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포대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목포현대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2014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9일 폐막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산업체의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를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수행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계의 인력 불합치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주력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12일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빌려주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동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 지원도 실시한다. 생계비 대부분은 한도 1000만원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황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불임금 청산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심 불량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북



평화대사 순창군협, 경로당에 사랑의 쌀 전달

평화대사 순창군협의회(회장 김봉호)가 지난 10일 관내 76개소의 급식우수 경로당에 쌀(20kg) 83포를 전달해 달라며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기탁했다. <사진> 이 쌀은 7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연달연시를 맞아 틈틈이 모은 성금 365만원으로 구입한 것이다.

김봉호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록 쌀 1포대씩이지만 추운 겨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교도소 이전 '터덕'

인센티브 지원 확정 안돼 후보지 공모조차 못해

전주교도소 이전이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애초 지난해 11~12월 후보지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이전 지역을 선정하려던 전주시는 이달 중순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마땅한 이전 지역을 찾지 못해 터덕거렸던 전주교도소 이전을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가 바뀌도록 아직 공모조차 하지 못했다.

전주시는 12일 "교도소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속내는 인센티브 지원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전주시도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다른 시도의 교도소들이 이전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선례와 부담 때문에 전주시의 요청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이달 중순에 법무부와 추가 협의에 나선 뒤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2월까지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처음인데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에)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시는 2017년 교도소를 착공,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봉준 장군 탄생 158주년 기념행사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는 지난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역이었던 '전봉준 장군 탄생 1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강수 고창군수, 조병익 군의회 부의장, 김대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남기 동

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전봉준 장군 후손, 기념사업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봉정의식으로 현수, 봉정, 158송이 헌화와 장군이 서울로 끌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죽령교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정읍, 영세소상공인 50명에 5억 지원

정읍시는 올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 용자로 50명에게 5억원의 지원을 한다.

특별보증 용자 제도는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담보나 보증 없이 금융기관(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

시지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율은 연 3.0%까지이며, 3%를 초과한 이자는 정읍시에서 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서울 남원 애향장학숙 다음달 말 개관

남원지역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요람이 될 서울 남원장학숙이 오는 2월 말 개관한다.

남원 애향장학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68명을 수용하며, 지하철 보문역에서 도보로 2분여 거리로 최적의 교통여건과 다양한 면학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원장학숙 입사생 선발 신청을 오는 2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다. 입사지원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남원 친환경농산물 30개 품목으로 확대

친환경농 육성 50억 투자

남원시는 12일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서울시 친환경원예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전북권에서는 남원원협이 최초로 선정, 매월 20~30%씩 매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30개 품목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49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남원원협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에 3억여원을 투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유통시설·장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

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지난 2012년 155개 학교에서 2013년에는 서울, 부산 등 전국 770개 학교까지 급증했으며 남원원협은 서울 학교급식 등으로 전년대비 130% 이상 매출이 늘었다.

남농농조합법인인 서울 노원구, 부산 연제구 친환경 쌀 공급 등으로 전년대비 1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에 22억1000만원, 친환경직불제·토양개량제·인공비 지원 등에 13억2600만원, 친환경 자재 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확충에 9억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2억1600만원 등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전북대, 베트남 LED 식물공장 시험 가동

전북대가 들어갔다. 전북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는 지난해 말 베트남 달랏대학교를 방문해 모두 1400주를 재배할 수 있는 LED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전북대는 지난 10월 베트남 달랏대학교에 LED 식물공장을 완공하고 병충해에 강한 무병주 생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는 지난해 말 베트남 달랏대학교를 방문해 모두 1400주를 재배할 수 있는 LED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전북대 제공)